



기획재정부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행사(7.5, 14:30) 시작시	배포 일시	2022. 7. 5.(화) 10:00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책임자	과 장 심현우 (044-215-4750)
		담당자	사무관 박수민 (sumin@korea.kr)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 결과

□ 기획재정부는 7월 5일(화) 14:30~16:30, 수출입은행에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9월부터 민관합동 TF를 통해 검토해 왔던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개편 필요성과 개편 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요 >

- ▶ (주최) 기획재정부
- ▶ (일시·장소) 7.5일(화) 14:30~16:30, 수출입은행 6층 대강당(대면 + 유튜브 중계)
- ▶ (주제) 외국환거래법 전면개편 필요성 및 개편방향
 - (1부) 외국환거래법 전면개편 필요성
 - (2부) 외국환거래법 개편방향 및 법령 정합성 제고방안

□ 방기선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위상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외화유출 억제’라는 과거의 입법정신에 벗어나 새로운 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는 **쉽고 단순하게** 바꾸는 한편,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로 위기 대응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新) 외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세미나는 1, 2부로 나누어져 윤덕룡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의 사회로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100여 명의 현장 참석자들 외에도 실시간 중계를 통해 참여하는 등 23년만에 시도하는 외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세미나 1부에서는 외국환거래법령의 개편 필요성을 논의했다.

- 첫 번째 발제자인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환거래법 개정 통한 금융경쟁력 제고와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고,
-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표를 통해 사전 신고제를 비롯한 법령체계의 재정비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외환거래 자율성 및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토론자들은 우리의 경제 체질 변화에 맞춘 외국환거래법 개편 필요성 (동국대 강삼모 교수)에 공감하는 한편, 은행권-비은행권간 외환규제의 비대칭성 개선시 일정수준 이상의 위험관리능력과 재무적 안정성이 요구됨(연세대 성태윤 교수)을 강조하였고,
- 비(非)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업무 지원 차원에서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은행수준으로 확대할 필요성(한국금융연구원 박해식 선임연구위원)과 가상 자산, 간편결제서비스 등 새로운 대외지급 수단과 방법 등에 대비한 적절한 대응 필요성(우리은행 김응철 부행장) 등을 언급했다.

□ 세미나 2부에서는 외국환거래법령의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신(新) 외환법 제정을 통해 외환거래 사전규제 완화와 함께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대응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하면서,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뿐 아니라 단계적인 원화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및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 관련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는 두 번째 발표를 통해 새로운 외환제도는 외국환정보의 집중과 관리를 1차적 목적으로 하되 비상시 국가개입 통한 대외거래 발전도 2차적 목적으로 규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 토론자들은 증권사 등 비(非)은행기관의 업무영역 확대시 금융발전 및 기회창출 효과(미래에셋증권 이재현 본부장)와 함께 이에 따른 안전장치 도입 필요성(고려대 신관호 교수)을 언급하였고,
 - 안보정책 차원의 금융제재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대외경제연구원 김효상 국제금융팀장)을 강조하면서도 현행 세이프가드 이상의 국가 개입시 문제 야기 가능성(김앤장 이금호 외국변호사)도 지적했다.
-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언은 향후 「외환제도 개선 민관합동 TF」의 논의과제로 활용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금년 하반기 중 「국민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외환거래 관련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제정 방향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국민과 기업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 ※ <참고1>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개회사
 <참고2> 「신(新)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프로그램
 <참고3> 「신(新)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발제자료(별첨)

개 회 사

2022. 7. 5.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방 기 선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주최하는
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한국개발연구원의 윤덕룡 박사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 주신 강동수 박사님과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승호 박사님,
서울대 정순섭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제금융학회의 강삼모 회장님과
성태윤 부회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분들과
현장에 와주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가해 주신 모든
청중분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新 외환법 추진배경

내외 귀빈여러분!

외환제도의 기반이 마련된 1962년 당시,
외환은 함부로 쓸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었기에
외환의 지급에 대해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방식을
엄격히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우리경제의 성장으로 외환자유화를 추진하고,
'99년에는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여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라는 원칙 하에
외환거래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경상수지 흑자로 순채권국이 된 이후에도 외
환규제의 근본 틀은 '외화유출 억제'라는
과거의 입법정신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규제 완화의 노력이 오히려 상이한 수준의 규제와 예
외의 예외 등 복잡한 규제체계를 양산하는
역효과를 야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은 급속도로 변화하여
기업뿐 아니라 개인의 해외투자 확대 등
외환거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금융업종, 거래 유형과 결제수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거주의에 입각한 경직적인 법규체계는
이러한 금융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역규모 8위의 글로벌 10대 경제강국 지위에서,
변화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경제의 위상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철학에 기초한 외환거래제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외국환거래법령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해왔던 단편적·부분적인 개정이 아닌 새로운 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외환거래제도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3 新 외환법 추진방향

내외 귀빈여러분!

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외환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과도한 규제는 철폐하겠습니다.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 의무화되어 있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민간과 기업,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거래절차는 쉽고 단순하게 바꾸겠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외환거래를 할 때마다 복잡한 규정으로 거래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지불식 간에 위규를 행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법령의 틀 안에서 부분적·개별적인 개정은 한계가 있음을 이미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기존의 외환거래법령을 폐지하고
新 외환법 제정으로 거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위기대응은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최대한으로 허용되는 만큼
급격한 자본유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시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있게 마련하겠습니다.

4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비결은
낡은 것과 싸우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다'¹⁾라고 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지난 20년간 유지했던 외환체계에서 벗어나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인 외환거래법령을
새로이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1) 소크라테스(Socrates, BC469~399, 아테네 출신 고대 그리스 철학자) "The secret of change is to focus all of your energy not on fighting the old, but on building the new."

편리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新 외환법을 만들어
우리 국민들의 접근성과 거래편익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과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담긴
외환제도 개선에 대하여 규제당국인 정부와
학계·연구기관 및 시장참여자간 많은 소통과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향후 우리 경제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新 외환법 제정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7.5)」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연사 및 패널
14:10-14:30		참석자 등록
14:30-14:35	개회식	개회사 : 기획재정부 제1차관
14:35-15:30 (55 분)	제1부 외국환거래법 전면개편 필요성	<p>■ 사회 : 윤덕룡 박사(한국개발연구원)</p> <p>■ 발표(30분)</p> <p>① 강동수 박사(한국개발연구원)</p> <p>② 이승호 박사(자본시장연구원)</p> <p>■ 토론(25분)</p> <p>① 강삼모 교수(동국대, 국제금융학회장)</p> <p>② 성태윤 교수(연세대, 국제금융학회 부회장)</p> <p>③ 박해식 박사(한국금융연구원)</p> <p>④ 김응철 부행장(우리은행)</p>
15:30-16:30 (60 분)	제2부 외국환거래법 개편방향 및 법령 정합성 제고방안	<p>■ 사회 : 윤덕룡 박사(한국개발연구원)</p> <p>■ 발표(30분)</p> <p>① 김성욱 국제금융국장(기획재정부)</p> <p>② 정순섭 교수(서울대학교)</p> <p>■ 토론(30분)</p> <p>① 신관호 교수(고려대학교)</p> <p>② 이금호 외국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p> <p>③ 김효상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p> <p>④ 이재현 본부장(미래에셋증권)</p>